

76
[artist]

생생한
공상

2018년 초여름에 진행된 인터뷰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어떤 분위
기에서 인터뷰 답변을 하고 있나? 농장에서 차내에 격리 중이지만, 손자의 장난감
이런도 있으니 다행이다(웃음). 지금은 영국 방송을 틀어놓았다. 미국 뉴스보다 영국
드라마가 나오니까, 훌륭한 가족 소피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이 모습을 볼 수 없
다는 정도 다행이다. 어떤데 이 인터뷰는 항상 책상에서 마침 생각이이다. 침상에서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나는 침상의 친밀함이 좋다.

1980년대 'PROTECT ME FROM WHAT I WANT'라는 문장을 타일스 스킵
이 전광판에 띄운 일산은 올해 'PROTECT ME FROM WHAT I DON'T WANT'
라는 문장으로 한 상황을 이어갔다. 40년 전은 물론 우리가 처음 만난 2년 전에도
상황이 같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
지 않는 것의 간극에는 무엇이 있나? 용감하게, 진실적으로, 자비롭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다. 간단하게, 상자가 이 상황을 기회주의적
으로 착취하여 행동하는 사람들만 관찰했다. 보호하고 생생하는 능력에 대한 등
경이 있다. 생사가 달린 순간조차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원하는 바를 행동으
로 옮기기 전에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좋고, 내가 제시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지금의 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 대선 투표율 촉구를 SNS 피로도 잘 보인다. 누구보다 현실과 가장 밀접
하게 관계 맺고 있는 정치의 삶과 직업에, 이토록 공경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이 어
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훌륭한 사람들과 협업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
행했다. 공공 미술을 통해 배운 바를 이용해 주요한 이유를 강조하고 사람들이 투
표하도록 독려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소셜 미디어에 대해 잘 알게 됐다. 향후 내
작업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다. 미술을 떠나 얘기하지만, 최근의 미국 정치는
머시 머리를 알아듣는 듯한 기분이기도 현대 자신의 양상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
임에 대해 일깨워준다. 사회가 분열되고 상처받은 와중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 고
통받았다. 미국적 가치를 회복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이번 전시는 9년 만에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개인전이다. 직접 오지 못하기에 공간
의 분위기를 더 상상할 것 같은데, 어떤? 여러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지 못하
는 것이 너무 아쉽다. 서울 하면 그곳에서 나는 인상적인, 의미 있는 대화가 떠오
른다. 많은 한국인들은 어렵고 근본적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
는다. 그 성장과 능력을 동경한다. 나도 서울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좋았을 텐
데... 멀리서 작품 설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태평양 건너에서 투시 능력을 써
보고 있는데, 초능력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말을 만난 건 아니어서, 유능한 팀과 일
하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전시 제목 'It's Crucial to Have an Active Fantasy Life(생생한 공상을 하
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늘 마음에 들어도 좋은 정도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문장
이 아닐까? 이 문장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긍정적이고, 웃기고, 현실도파적
이고, 진지할 수 있어서 제목으로 골랐다. 한 번도 상상되거나 실현된 바 없는 것을
구현해 전달하는 창의적 활동인 미술과 연관된 거다. 예뻐보이는 사람들의 묘사하
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움직이고 있다. 더 나은 것이 무엇
인지를 공리하여 꿈꾸며 푸니까, 더불어 이루어지고 지옥한 현실로부터 아름다운
꿈을 연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혼자 있을 땐 수채화 작업만 한다고, 테크 아티스트 포그래밍이 아닌 이별 앞에서 작
업한다는 게 새삼 낯설다고 했는데, 바로 그 작품들을 이번엔 보게 됐다. 어떤지 당
신이 '오래된 미래로 진화한다는 느낌이다. 어떤 계기로 수채화를 시도하게 됐나?



제니 홀저의 설치 작품 사진과 달리 코퍼레이션(Koblenz)의 부마디가 최현준 작가의 작업실

현대미술가 제니 홀저(Jenny Holzer)의 개인전은 이 기막힌 2020년의 송가(頌歌)다. 대리석에 새긴 문장, LED에서 춤추는 문장, 기밀문서 위의 문장, SNS에 스쳐 지나가는 문장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간적으로 변화한 언어가 나의 마음에 심장에 각인된다. 존엄하게 살아남고자 하는 이들을 품어 안는 문장들이 희미극의 경계에 선 우리의 일상에서 공명한다. EDITOR SOHYUN CHO CONTRIBUTING EDITOR HEIJEONG YOON

"내가 내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다가온다. 나의 빛 프로젝션을 보기 위해 오고, 가까이 서서 침묵에 빠지
글을 읽으면 나는 평화를 찾는다. 세상의 공격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그 역시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림을 거의 그치지 않았을 때조차, 나는 늘 화가이고 싶었다. 1970년대에 수채화
에 도전했다 실패한 후로는 다시 손대는 게 두려웠다 기밀 해제된 문서를 수집하
던 어느 날, 그 문서가 비로소 나를 불렀다. 지난 선거 때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당
신을 도왔다 수사를 담은 '윌리 보고서' 내용은 좌절, 분노, 비동항의 정서로가
지 이어졌는데, 이 방주를 표현해보는 것이 올랐다 느껴졌다. 때때로 수채화는 보
고서의 내용을 강조하거나, 때로는 보고서의 텍스트를 거의 삼켜버리며(익스사키
미 지우기도 한다. 드러내는 것도, 없애버리는 것도, 둘 다 정확하다 싶었다. 최소
한 미학적으로는 말이다. 때로 볼 수 있을지언정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고, 보는 것
조차 어려울 때도 있다.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는 통제된 규율을 따라야 하고 복
잡한 설치물 진행할 때는 정교해야 하는데, 수채화 작업을 할 때는 외일드한 자유
를 즐긴다. 맞다, 나머지 작업에 비해 수채화는 미술 테라피에 가까울지도.

‘공간의 죄악’ ‘윌리’ 콜라주에 대한 추론 같은 제목이 수채화의 낭만을 배반
하는 것도 흥미롭다(웃음). 한편 또 다른 기밀문서를 활용한 유화인 ‘검열 회화
(Redaction Painting)’ 언뜻은 은폐와 공유를 넘어 ‘암영인 실험’과 ‘일
을 수 없는 순간’ 사이를 오간다. 검은색 블록으로 검열된 부분에 금박을 입혔으로
써 세상의 비밀을 직면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보지 못하거나, 볼 수 없거나, 볼 필
요가 없지 않던 진실들 드러내는 것이 예술의 역할임을 증명한다. 밝은이 직황적
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은 적은 없었나? 물론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어느
미국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였다. 어렸던 민간인 내용의 문서를 활용해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지만, 나는 이 자료(재료)와 한들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당신의 수채화처럼, 최근에는 어떤 작업이 곁들하고 있나? 소셜 미디어 작업을 하
며 능력 있는 에디터(에디터)들과 일할 기회가 있었다. 예컨대 텍스트를 뛰어오르거나
녹아웃된 것들 간도 잘 어울린다. LED 작품을 프로그래밍하는 데도 에디터(에디터)들
쓰는데, 요즘은 중간 현상에서 에디터(에디터)들을 활용할 생각이 매료되어 있다.
디젤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여성 문화기획의 문장을 차용한 로보트 LED ‘For You’
앞서서 남들께 좋았다는 사실도 고백하고 싶다. 작품 속 문장이 기계와 전자 효과
반복적이고 사치스러움이라는 통틀어 중재되었고, 움직임이 스펙트럼 덕분에 ‘민간
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자장치를 통해 전달된 텍스트가 어떻게 느껴지고 읽힐 수
있을지에 대해 언급해서 감사하다. 내가 LED를 좋아하는 이유는 구두로 말을
전달하는 형태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반면 성공적인 못하지만, 나의 목표는 실제
에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고요한 명상의 순간과 못 건다(못)다. 삶을 위한 감각적
목표의 순간을 오가는 디젤로 문장을 강화할지 바란다. 특히 텍스트가 속도를
내며 앞으로 내보내듯하는 것만으로도.

LED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오색적인 문장들은 당신이 일련의 진리로 유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동시에 과정에서 나온 관점은 본의 아니게 당황하는
것은 사실이다. 비판된 논조의 문장을 해하는 이유가 ‘정치적 올바름’과 ‘정치적인
것이 다른 대안이냐’ 때문일까? 초기 작업인 ‘경구물(Trials)’은 의도적으로 여러
주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사각화했다. 디젤은 의견과 현실이 우주를 채워보고
싶었다. 이는 자라치게 삼가나 포용되지 못한 세계관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
일 수 있을지, 오색의 현실에 유의미했는지 고민하며 실험한다.

어떤 LED 작품 제목은 ‘Statement’로 시작한다. 실정을 향한 공식적인 의지가 나
게지는 언어, 당신 작품은 기본적으로 실험을 독려하는데, 이를 굳이 제목으로 내
세운 이유가 있나? 그 제목은 텍스트를 사용하는 나의 습관, 그리고 선연을 날려
곤 하는 사람들의 강요를 시사한 것이다. 출제 말해 에디터는 스테이트먼트도 있

고, 변화를 촉진하는 점영인 스테이트먼트도 있다.
넓고 높은 공간에 가로 형태의 LED 작품 ‘Living’과 ‘Survival’을 새로 LED와 함
게 선보인다. ‘과거에 살아남아 현재를 사는’ 스스로를 가장 강하게 인식하는 때는
언제인가? 아주 어린 나이에 학대를 경험했다. 나는 살아 있는 생존자다.
매체의 물질성을 매개로 전달되는 문장이 사유의 순간을 선사할 때 다양한 제키
들이 작동한다. 예컨대 대리석에 문장을 새긴 작업은 유일하게 추각적이고, 스스로
문장을 아무런지도 보면 감정과 이해, 분노와 특혜의 방주를 넘나들며 일상적인 행
위를 의식하게 된다. 텍스트-매체 간의 조화 및 부조화를 어떻게 조율하나? 텍스트
와 매체 간의 화음은 조율하고 온전한 이해에 유용하고, 불협화음은 사람들이 주
의를 끌어 그들을 잠시 멈추고 혼란스럽게 하는 데 유용하다. 물론 나는 그 둘 다
활용하는 걸 좋아한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Better Life’를 믿나? 그렇다. 하늘에 더 멋진 삶을
생각하는 데에도 광망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최근 노래에 관한 단상 문장을 믿나? 트럼프의 ‘미시사’를 믿을 수 없다. 나
는 아닌 것이 자랑스롭다.
어디가 당신에게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 것처럼, 당신 시 관객에게 ‘이것 봐!’
의 순간을 선사한다. 작가로서 언제 가장 기쁘나? 내가 내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다가
온다. 나의 빛 프로젝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오고, 가까이 서서 침묵에 빠지
글을 읽으면, 나는 평화를 찾는다. 세상의 가장 공격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
다면, 그 역시 나를 행복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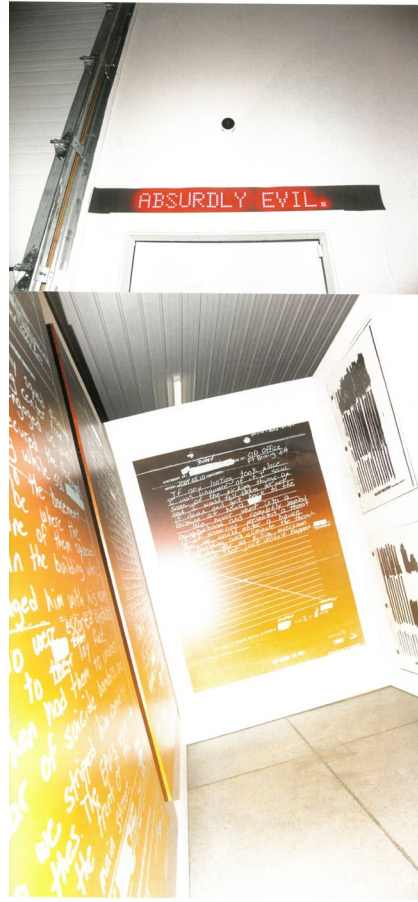
당신 작품을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 혹은 사유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행동 혹은
행위를 야기하고 유발한다. 있다, 보다, 당황하다, 울다, 결심하다 등등. 궁극적
으로 어떤 행위가 되길 원하나? 당신이 방금 열한 반응들이 광장적 용매였다. 그
것 모두를 재평가기 위해 노력하겠나 내가 원하는 반응을 또 얘기하겠나. 가장 중
요한 것에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선과 상식.

2019년 봄에 구경하임에서의 회고전은 어떤 시간이었나? 당시 자신의 무언가를
죄다 드러내게 될 거라 예상하고 말했는데, 나는 이 전시가 궁극해서 가끔 구경할
하곤 했다. 나의 현존을 정당화하고 싶었다.

농장을 아장가리던 커머 손자가 ‘예술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아, 그 사이 손주가
돌아 왔다. 사진가 말이 꽤나 비쌌다(웃음). 생각해보니 큰 손주가 이 질문의 답을
갖고 있다. 간단한 토양 위에 사탕사탕은 나무를 그리고는 “나는 미어를 그린 거야
오할다. 이리니 실도 채인 흰 인간에게 예술이란 매우 명쾌하고 굉장한 것이다.
사육이 아깝다 보니, 어떤 질문도 더 자주 받는다. ‘요즘 시에서 예술의 역할은 무엇
일까?’ 미술이 줄 수 있는 건 변함없이 있을까? 초월적인 승과함, ‘실재’에
요즘의 어찌 있지 회피할 수 없는 지현.

당신이 가리키는 공예, 2021년의 이상 한 계획이 있다면? 윤이 줄다던, 나이를
더 먹었다. 응용미술로서는 미국 상원의원 선거 투표 장에 문물을 할 것이다. 발바
오 구경하임과는 중장 현실을 실험해볼 것이다. 2022년 미술관 개관전으로 여러
주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사각화했다. 디젤은 의견과 현실이 우주를 채워보고
싶었다. 이는 자라치게 삼가나 포용되지 못한 세계관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
일 수 있을지, 오색의 현실에 유의미했는지 고민하며 실험한다.

당신이 당신의 빛 발라 코비트(비트)의 형용 후기를 가장 마음에 진한다. ‘사실
이 답변을 들으니 당신이 에 텍스트 작업에 집중하는지 알았다. 마지막으로, 사진가
어떤 LED 작품 제목은 ‘Statement’로 시작한다. 실정을 향한 공식적인 의지가 나
게지는 언어, 당신 작품은 기본적으로 실험을 독려하는데, 이를 굳이 제목으로 내
세운 이유가 있나? 그 제목은 텍스트를 사용하는 나의 습관, 그리고 선연을 날려
곤 하는 사람들의 강요를 시사한 것이다. 출제 말해 에디터는 스테이트먼트도 있



제니 홀처의 뉴욕 스페이스에서: LED 작품, 기밀 해제된 문서를 활용한 단일 회화, 그리고 또 다른 문서 위에 그린 수채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물론 구체적인 작품은 다르지만, 같은 작품들은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열리는 국제미술비엔날레에서도 선보였다. 그러므로 어떤 전시나 홀처의 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